

중1-2
국어
해냄

2026 중1-2 해냄 | 3(1) 단어의 갈래 기술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단어의 갈래」 단원에서는 품사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 예시 단어를 보고 어떤 품사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각의 개념, 각각의 품사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들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 <보기>는 품사에 대해 간략하게 일부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된 성질에 따라 묶은 갈래이다.
- 문장에서 쓰일 때 (㉡)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을(를) 하는지에 따라 체언,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 가지로 나뉜다.

- ① ㉠ - 공통 ② ㉡ - 형태
③ ㉢ - 기능 ④ ㉣ - 용언
⑤ ㉤ - 일곱

2.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별빛이 참 예쁘구나.
- 꽃이 예쁘네.

- ① ‘예쁘구나’는 문장에서 쓰일 때 기본형에서 형태가 변한 단어이다.
② ‘예쁘구나’의 기본형은 ‘예쁘다’이다.
③ ‘예쁘구나’는 가변어이지만 ‘예쁘네’는 불변어이다.

- ④ ‘예쁘구나’와 ‘예쁘네’를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용언에 해당한다.
⑤ ‘예쁘구나’와 ‘예쁘네’를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형용사’에 해당한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장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단어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 ① ‘아기’, ‘언니’, ‘꽃’은 ㉠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② ㉠은 ‘()이/가 말했다.’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동생’, ‘별빛’, ‘알록달록’은 ㉡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⑤ ㉠, ㉡은 품사의 분류 기준 중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4. <보기>에서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보기>

- ㄱ.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ㄴ. 명사, 동사, 부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
- ㄷ.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 ㄹ.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5. 다음 문장에 사용된 용언을 모두 찾은 것은?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요.

- ① 넘치는, 만들어요
- ② 존중, 사랑, 함께
- ③ 존중, 넘치는, 함께
- ④ 사랑, 학교, 만들어요
- ⑤ 사랑, 넘치는, 학교, 함께

6.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산이 단풍으로 물들었다.
- ② 새로 산 비옷을 입었다.
- ③ 날씨가 좋아서 첫째 동생과 산책을 했다.
- ④ 나와 친구는 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났다.
- ⑤ 집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7.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점심시간에 친구와 같이 볶음밥을 먹었다.

- ① ‘나’는 문장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품사에 해당한다.
- ② ‘같이’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 ③ 용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두 2개이다.
- ④ 관계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두 4개이다.
- ⑤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이다.

8.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눈을 가늘게 뜨다.
 - 예쁜 옷을 발견했다.
 - 굽이 낮은 신발을 신었다.

- 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 ② 현재임을 나타낼 때 ‘-다/-는다’를 붙여 활용한다.
- ③ 문장에서 쓰일 때 주로 주어,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④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⑤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어색하다.

9.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고, 문장에서 주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① 체언 ② 용언 ③ 수식언
- ④ 관계언 ⑤ 독립언

1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와 같은 품사가 사용된 것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 ① 자전거가 빨리 달린다.
- ② 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 ③ 칭찬을 들은 친구가 무척 기뻐한다.
- ④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깜짝 놀랐다.
- ⑤ 동생은 내가 준 선물을 받고 가장 행복해 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품사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갈래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므로 적절하다.

③, ④ 품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뉘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③

‘예쁘구나’와 ‘예쁘네’ 모두 ‘예쁘다’라는 기본형에서 형태가 변화한 단어이므로 가변어로 볼 수 있다.

①, ② ‘예쁘구나’는 문장에서 쓰일 때 기본형 ‘예쁘다’에서 형태가 변한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④, ⑤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참고했을 때 ‘예쁘구나’와 ‘예쁘네’는 주어의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용언, 형용사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은 체언, ㉡은 수식언에 해당한다. ‘알록달록’은 수식언에 해당하지만 ‘동생’, ‘별빛’은 체언에 해당하는 단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아기’, ‘언니’, ‘꽃’은 모두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② ㉠은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므로 적절하다.

③ ㉡은 수식언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⑤ ㉠은 체언, ㉡은 수식언으로 품사의 분류 기준

중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4. 정답 ③

ㄴ. 명사는 체언에 해당하지만 동사는 용언, 부사는 수식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ㄷ. 체언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ㄱ. 체언은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ㄹ.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①

‘넘치다(넘치는)’와 ‘만들다(만들어요)’는 동사이므로 용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된 용언은 ‘넘치는’과 ‘만들어요’ 모두 2개이다.

②, ③, ④, ⑤ ‘존중’, ‘사랑’, ‘학교’는 명사이므로 체언에, ‘함께’는 부사이므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깜짝’은 ‘놀랐다’라는 동사(용언)를 꾸미는 부사(수식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선지와는 품사가 다르다.

① ‘단풍’은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② ‘비웃’은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③ ‘첫째 동생’의 ‘첫째’는 수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④ ‘나와 친구’에서 ‘나’는 대명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7. 정답 ③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속한다. <보기>에서 용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먹었다’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문장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체언으로, ‘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속한다. ‘같이’는 부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관계언은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

는 말로, 조사가 이에 속한다. <보기>의 문장에서 조사는 ‘는’, ‘에’, ‘와’, ‘을’ 4개이므로 적절하다.

⑤ 기본형은 활용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이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아라/-어라’를 붙여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형용사는 현재임을 나타낼 때 ‘-나다/-는다’를 붙여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장에서 주로 주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형용사, 즉 용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형용사, 즉 용언이므로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수식언이다.

①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주로 주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관계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독립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문장에서 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

제시된 문장에서 ‘어떤’은 ‘어른’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새’는 ‘신발’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① ‘빨리’는 ‘달리다’라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③ ‘무척’은 ‘기뻐하다’라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④ ‘깜짝’은 ‘놀라다’라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⑤ ‘가장’은 ‘행복하다’라는 용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11. [정답] ④

‘시간’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모든’이라는 수식언(관형사)이 사용되었다.

①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체언(하늘, 노을빛), 관계언(이, 으로), 용언(물들었다)은 사용되었지만 수식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체언(나무, 잎사귀, 거름), 관계언(에서, 는, 이), 용언(떨어지다, 되다)은 사용되었지만 수식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체언(도서관, 책, 때, 모바일 회원증), 관계언(에서, 을, 는, 을), 용언(빌리다, 사용하다)은 사용되었지만 수식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체언(주말, 제주도, 여행), 관계언(에, 로, 을), 용언(떠나다)은 사용되었지만 수식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12. [정답] ⑤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이를 생략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부름,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낸다. ‘배드민턴’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우아’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말하는 이의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오!’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말하는 이의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이야’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말하는 이의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응’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말하는 이의 대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